

기업단지·R&D 클러스터...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조성

광주시 군공항 이전 부지 활용·재원 확보 방안과 과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시가 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3년 만에 최종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전 건의서는 오는 2022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이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군 공항이 이전하는 과정과 이전 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살펴본다.

◇군 공항 부지 활용 방안=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면 기존 부지에 서남권 중심의 '솔마루 시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중심상업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워드프린트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기존 부지 820만㎡ 가운데 공원 녹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의 비율을 42.1%로 하고, 주거용지는 30%, 상업용지 6.5%, 산업용지 21.6% 등으로 나누어 이용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 문화, 자동차 등 광주 3대 산업 관련 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관련 R&D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대학 유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밸리 관련 R&D센터 및 대기업 유치, 아시아문화전당·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연계된 기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황룡강과 접한 부지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친수공간으로도 조성한다. 영산강 및 황룡강변에 인접된 수변녹지 부지는 약 330만㎡에 이른다. 영산강 수변을 따라 수변공원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중심부에는 활주로를 활용한 대규모 공원(메모리얼 에어파크) 등 기존 군 공항 건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 관제탑을 활용한 랜드마크인 솔마루타워(가칭)도 조성한다. 또한 수변·문화공간, 커뮤니티와 삶의 여유가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주택

42% 녹지·도로 기반시설

아파트 등 4만 가구 건설

공공·민관 개발 방식 검토

수요를 고려해 주택건설용지 244만㎡에 4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와 타운 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를 도입하고, 주민들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이뤄질 계획이다.

호남권 외국 방문객을 위한 광역중심 상권도 조성된다. 광주지하철 공항역과 부지 중앙의 중심 상업지역에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대형마트, 백화점, 관광 및 비즈니스호텔 등이 배치되고, 소규모 근린 상업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변을 활용한 체험, 놀이,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광주형 테마파크 조성도 계획됐다.

무엇보다 기존 군 공항 부지와 도심 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도로 계획 및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입될 계획이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주 송정역~공항역~군 공항 부지로 연결되는 트램(Tram) 1개 노선(6개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전부지 어떻게 선정하나=먼저 국

방부와 광주시가 3곳의 후보지를 압축해 선별한다. 국방부는 원활한 군 작전수행이 가능한 곳,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완충지역 확보 가능 지역, 현대화된 신기지 건설 용이 지역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별한다.

광주시와 국방부에 의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곳은 공항시설이 있는 무안과 해안·섬 지역 등의 3곳이다. 이 후보지에 대해 설명회와 공청회가 이뤄진 다음,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사업시행 방식과 재원마련은?=기존 군 공항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은 LH 등 공공개발기관을 통한 공공방식, LH와 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개발형 민관 합동방식' 그리고 LH에서 SPC(특별목적법인)를 만들어 이전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개발하는 '양여형 민관PF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공공방식'의 경우 안정적 사업시행이 가능하지만 공공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개발형 민관합동방식'은 개발이익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양여형 민관PF방식' 역시 재원확보가 용이하고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 합법적 절차 거쳐 법제화 바람직”

정세균 국회의장 일문일답

개헌, 국민 생각이 가장 중요 의원 특권 국민 눈높이 맞게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개헌과 국회 의원 특권 내러닝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여소야대 20대 국회 첫 의장으로서의 포부를 내비쳤다. 다음은 정 의장과 일문일답.

-개헌 적기는 언제라고 보나.

▲개헌 타이밍에 대해서는 모범답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20대 국회에 했으면 좋겠다. 대선 전 해지우자는 얘기도 있고 새 정부 초기에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시기 특성은 어렵고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개헌 일정에 대한 의장의 의견은. 또 개헌특위는 어떻게 운영될까.

▲개헌은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문제로 의장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결국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각 정파가 이에 공감하고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만 가능성이 있다. 또 의장 자문기구는 의장 의지로 될 수 있지만, 개헌특위는 각 당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시간을 절약할 방법이다. 급할수록로서의 포부를 내비쳤다. 다음은 정 의장과 일문일답.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재의결될까.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 던진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국회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회기 말 재의 요구한 게 폐기된 것으로 봐야하는 지 20대에서 재의하면 되는지 법리논란

이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회가 어떤 논리를 수용할지 고민해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입법취지는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법제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백서도 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 국민 인식처럼 200여 가지 특권이 있다면 그에 대해선 전혀 공감 못한다. 아무리 세봐도 20개 이상 없었다. 확실히 검증해서, 다 펼쳐봐서 정말 200여 가지라면 대폭 수술해야 한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된 시대가 변했다. 헌법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하듯이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특권 내려놓는 범위, 내용엔 성역이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 의원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보상 법률안' 발의

상임위도 국방위로 바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6일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지역 지정 기준 등을 담은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 군공항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속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에서 국방위로 바꿨다.

김 의원의 이날 법률안은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도 75데시벨 이상인 곳을 소음대

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10여 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피해보상과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음피해 보상대상을 우선 85데시벨 이상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기준을 완화해 10년 후에는 75데시벨 이상까지 하도록 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3년 단위로 소음방지 시설 설치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법 시행 6년 후부터는 75데시벨 이상 모든 주택에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31만5000여 가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김 의원은 법률 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구인 광산구에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현안 추진을 위해 같은 당 전정배 상임공동대표와 상임위를 맡아왔다. 이에 따라 애초 국방위로 예정된 전 대표를 보건복지위에서, 김 의원은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승민 복당...새누리 제1당으로 4명 일괄 복당...친박계 반발

새누리당이 1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 회의에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 무소속 당선된 7명의 의원에게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친박계 반발 등 후폭풍에 시달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혁신비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복당을 신청한 강길부·유승민·안상수·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명의 복당은 곧바로 승인됐다. 이날 결정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22석에서 126석으로 증가, 12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됐다.

하지만, 이 결정 이후 김 위원장이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는가 하면 17일 열린 예정이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계획 발표 반나절 만에 전격 취소됐다.



"건전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가격 공개!"

8년전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식 비	구분		수량		단 가		구분		수량		단 가	
	구분	수량	단 가	구분	수량	단 가	구분	수량	단 가	구분	수량	단 가
정직한 장례문화에 대응합니다	밥	60인분	60,000	고사리나물	3k	45,000	동대+애호박전	4k	96,000			
	육계장	60인분	114,000	표고버섯나물	3k	54,000	초고추장(직접만들)	1병	15,000			
	쇠고기무국	60인분	114,000	파이고추멸치조림	3k	78,000	양념새우젓(국산)	1k	15,000			
	북어무채국	60인분	108,000	명태고다리조림	4k	88,000	인절미	6k(3되)	54,000			
	된장국(국산검은콩)	60인분	96,000	오이도라지무침	4k	84,000	기피인절미	6k(3되)	57,000			
	배추김치(국산)	5k	57,500	홍어회무침	4k	104,000	골떡/절편	6k(3되)	45,000			
	도라지나물	3k	45,000	홍어사시미	4k	120,000						
	새송이나물	3k	54,000	돼지삼겹(수입)깃가	5k	105,000						
	취나물(계절)	3k	54,000	돼지삼겹(국내)깃가	5k	190,000						

주류·음료 소주 1,500 / 맥주 1,600 / 콜라, 사이다 700

맛과 품질과 중량을 만드시 비교해 주십시오

- 전 빈소 전자저울 비치로 음식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판매 즉시 전산전표 발행으로 실시간 장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린장례식장
www.greenfuneral.co.kr
Tel. 062)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그린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귀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린에서 상을 치루시면, 전국 어디서나 문상객이 찾아오기 편리하며,
쾌적한 접객실, 맛있는 음식, 품격있는 행사와 의전으로 고인에 대한
예와 품격을 높이고, **장례비용은 대폭 절감하여 상주님께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